제목: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재해석

부교재: **창조, 타락, 구속** 이름: **김현욱** 학번: **21800201**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창조의 구조 속에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서 그 방향성과 형태가 뒤틀렸음에도 그 구조는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나 거듭남으로써 손상되지 않은 창조세계의 선한 상태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죄와 창조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구속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행위 전체를 가리켜 법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성경의 중심 용어이자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 과학에서 발견되는 자연법칙에는 익숙하지만 문화와 사회 즉,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법을 규범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의 법을 반포하시고 그 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요구하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자연법칙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 지배는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서 '인간'이라는 매개를 사용하신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전시키는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를 향한 계획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의 의미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삶의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죄라는 악덕은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계획의 분명하고도 광범위한 위반이다. 인간이 넘어지는 '죄'는 창조의 질서 내에 존재하며 무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선한 창조 세계와 구별되지만 이 새로운 축은 기생충처럼 창조 세계에 기생한다. 이 두 질서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며 모든 실재의 근본 질서는 서로 공존하시만 이 중 하나는 본래적이고 다른 하나는 우발적이라는 점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의 선한 창조 속에 죄의 존재를 허락하는 이론이 있다면 이는 교묘하게 죄의 책임을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해 악은 선한 창조보다 선행하지 못하며 오직 타락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그 타락의 원인은 뱀(악마)이 존재함 때문이 아닌 인간이 범죄(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저지른 행위 때문에 선한 지상계가 속박에 메이게 된 것이고 그 책임 온전히 인간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 사건은 구속의 의미를 가진다. 구속은 어떤 사람이 그 포로를 위해 몸값을 치르고 그에게 본래의 자유를 '도로 사주다'라는 뜻이며 죄인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 전에 향유하던 자유를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은 회복의 기적이다. 이를 통해 죄와 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피조물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방향이 그들의 경험 아래 깔려 있다고 고백하기에 다른 이들의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감수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향해 조율되어 있는 것이다. 개혁의 의미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화와 정화의 행위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적으로 갱신하고 재생하는 과정이며 거룩케 하는 갱신이 인간 활동의 전 영역에 퍼져 나감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창조 때에 형성된 것이 역사적으로 죄에 의해 왜곡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창조와 타락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 처음으로 맘에 와 닿은 말은 창조라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닌 연속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말이었다. 그저 내가 태어난 이유에 집중하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만 있을 뿐이었다. 창조라는 것은 나의 삶과 무관하게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만들고 명령하신 그 사건에서 멈춰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내게 적용되고 있는 창조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삶을 살아가면서 드렸던 하나님의 소명과 그 꿈이 저의 꿈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라는 매개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크신 계획임을 깨달으며 온전하신 뜻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였다.

두 번째로 죄는 창조의 질서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었다.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을 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을 때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선다. 분명 죄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기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창조의 섭리이고 또한 그 자유 의지라는 것을 통해 인간이 죄의 영역에서 무너지는 것은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느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에 가볍게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차원에서 본다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180도 뒤집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벗어나야 함을 느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경제적, 심리적 위치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의 세계관이다. 이 책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내가 만일 산의 정상을 목표로 삼고 걸어간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경로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목표로 가는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객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안목은 결코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들 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소명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옳게 고쳐 나갈 수 없다. 세계관이란 그 근거에 두는 신념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을 해야 하며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매달고 살아가는 삶이 합당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